

민주 “尹, 보여주기 민생쇼가 아닌 대책 실행해야”

김성한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대통령 말,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 반영”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다. 쇼가 아닌 대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진정성이 있지만,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헌남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해현장을 방문해 침수재난지원

금을 최대 200만원 높이고 그 대상도 넓히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쌀값”이라며 “풍년이면 농민이 기뻐해야 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기국회 구상을 밝혔다.

그는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상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울상이다.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는 조부자의 세금을 깎으려는 정부·여당과 조부자감세를 막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납품단가연동제 등 제도개선 등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조성해 돌파하려 했다”면서 “김건



희 여사는 수사나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이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 상대방에는 쇠파동이와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남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이슬기자

“민주당, 이재명의 정치적 인질로 전략”

권성동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野 패당망신”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략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나흘동안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 뿐,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했다.

이러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는데, 이것도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느냐”며 “그렇다면 보복의 주체는 민주당인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략해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소환 거부 명분이었던 서번 답변이 다섯 줄도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다섯 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네 번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이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 골몰해 ‘법 앞의 평등’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간곡한 정치적 숙수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말길 바란다.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서선욱기자

尹 측근 ‘주기환’, 與 비대위원 사의…후임은 전주혜

與 “주기환, 인선 발표 후 정진석에 간곡한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13일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으로 인선된 지 1시간 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전 비대위원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전 위원 사의 표명에 대해 “처음엔 뭐 할듯이 얘기하다가 광주에서 할 일이 많으면서 서울 왔다갔다하기가 좀 무겁다고, 조금 전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주 전 위원 논란을 의식해 사의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전주혜 의원이 또 호남 출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예상이 없던 교체 아닌가’라는 지적엔 “그렇다”며 “주 전 위원이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발표한 건데 본인 여러가지 상황이, 오고가는 데 할 일이 많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뭐하고 (해서) 고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의원도 호남 연고이지 않나. 울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체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진석 의원까지 울산 출신이 두 명이나 비대에 합류하게 된 건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차분 신중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 법률 팀에서 하는 거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전 의원 케이스는 지금 교대를 한 거고 정 의원은 이런 저런 대가여서 같이 일을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추가 비대위 인선 발표를 갖고 “2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에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해와서 주 전 수사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 전 위원은 이날 발표된 새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지난 비대에 참여했던 인사다. 대검 수사관을 지내고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변인은 주 전 위원의 사임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정 비대위원장에게 본인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비대위 인선 발표 전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는데 발표 후 다시 또 뜻을 전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인선 기준으로 밝혔던 지역 안배 문제가 흔들린 것 아닌가’라는 물음엔 “최초 호남 몫은 우리 당 이용호 의원에게 부

탁드렸는데 이 의원이 고사하는 바람에 주 전 위원으로 호남 몫을 배정했다”며 “그런데 오늘 또 주 전 위원이 간곡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연고지가 전주인 전주혜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형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지명된 비대위원 6명의 인선을 발표하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게 됐다. 원외 인사에 무게를 뒀다 다양한 소리를 수렴하고자 한다”며 인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주 전 위원이 주호영 비대에 이어 재선임된 데에 대해선 “그런 부분보다 호남을 대변해야 한다는 부분이 더 컸다”며 “주 전 위원은 호남 인사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주 전 비대위원이 직을 사퇴하면서 새 지명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김상훈(3선·대구 서구), 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 전주혜(초선·비례대표)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병민 서울 광진구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